

2017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8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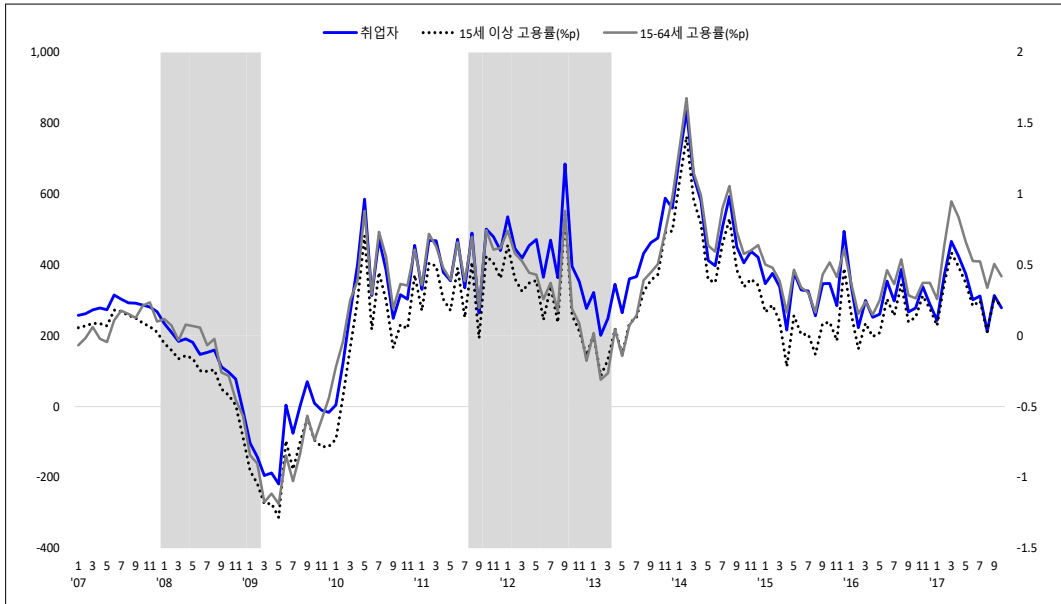
동향분석실

I. 2017년 노동시장 개관

2017년 1~10월 평균 취업자 수는 수출호전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 전환 등 경기회복 신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30천 명 증가해 2016년보다는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분기 279천 명(10월 279천 명 ↑) 증가해 최근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 개선 추세가 다소 주춤하고는 있다. 그러나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된 8~10월에도 15~64세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0.5%p

[그림 1]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증가한 66.9%로 나타나,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2016년 동기간 전년동기대비 0.3%p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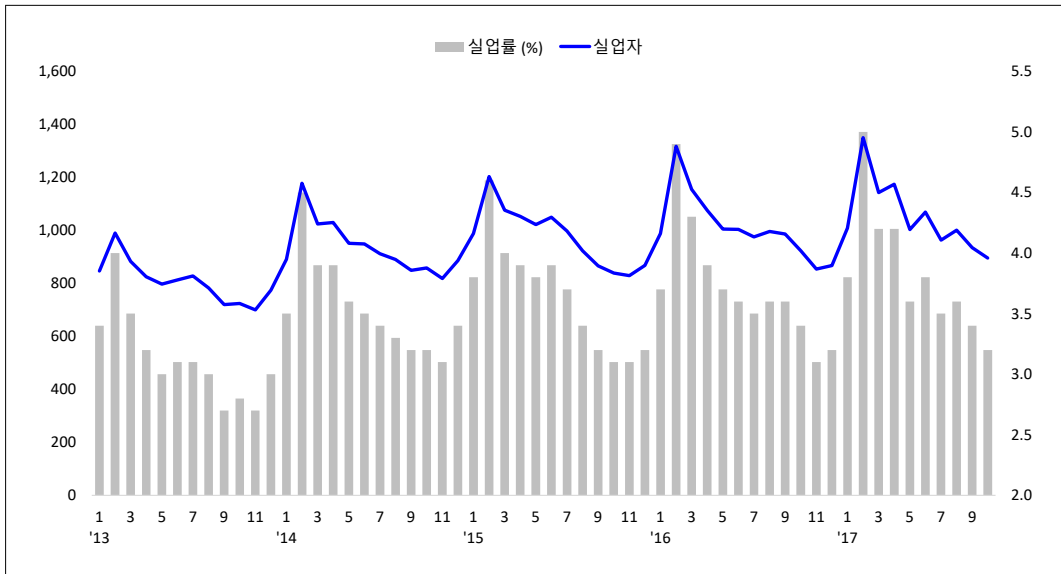
		연 도				1~10월			
		2013	2014	2015	2016	2014. 1~10월	2015. 1~10월	2016. 1~10월	2017. 1~10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2,096	42,513	43,017	43,416	42,474	42,981	43,389	43,730
	(증가율)	(1.2)	(1.0)	(1.2)	(0.9)	(1.0)	(1.2)	(0.9)	(0.8)
	경제활동인구	25,873	26,536	26,913	27,247	26,538	26,912	27,249	27,590
	(증가율)	(1.5)	(2.6)	(1.4)	(1.2)	(2.7)	(1.4)	(1.2)	(1.3)
	취업자	25,066	25,599	25,936	26,235	25,584	25,910	26,206	26,536
	(증가율)	(1.6)	(2.1)	(1.3)	(1.2)	(2.2)	(1.3)	(1.1)	(1.3)
	(증가수)	(386)	(533)	(337)	(299)	(554)	(326)	(296)	(330)
	참가율	61.5	62.4	62.6	62.8	62.5	62.6	62.8	63.1
	(남성)	(73.2)	(74.0)	(73.8)	(73.9)	(74.1)	(73.9)	(73.9)	(73.9)
	(여성)	(50.2)	(51.3)	(51.8)	(52.1)	(51.4)	(51.8)	(52.1)	(52.6)
	고용률	59.5	60.2	60.3	60.4	60.2	60.3	60.4	60.7
	(남성)	(70.8)	(71.4)	(71.1)	(71.1)	(71.4)	(71.1)	(71.0)	(71.0)
(여성)	(48.8)	(49.5)	(49.9)	(50.2)	(49.6)	(49.9)	(50.2)	(50.7)	
실업자	807	937	976	1,012	953	1,002	1,042	1,054	
실업률	3.1	3.5	3.6	3.7	3.6	3.7	3.8	3.8	
(남성)	(3.3)	(3.6)	(3.7)	(3.8)	(3.6)	(3.8)	(3.9)	(3.9)	
(여성)	(2.9)	(3.5)	(3.6)	(3.6)	(3.6)	(3.7)	(3.7)	(3.7)	
비경활	16,223	15,977	16,105	16,169	15,936	16,069	16,140	16,139	
(증가율)	(0.9)	(-1.5)	(0.8)	(0.4)	(-1.7)	(0.8)	(0.4)	(0.0)	
15~64세	생산가능인구	35,951	36,107	36,349	36,485	35,941	36,091	36,335	36,481
	(증가율)	(0.8)	(0.4)	(0.7)	(0.4)	(0.9)	(0.4)	(0.7)	(0.4)
	취업자	23,168	23,596	23,899	24,105	23,570	23,866	24,074	24,321
	(증가수)	(271)	(428)	(303)	(206)	(444)	(296)	(209)	(247)
	참가율	66.6	67.8	68.3	68.7	67.8	68.3	68.7	69.3
	(남성)	(77.6)	(78.6)	(78.6)	(78.9)	(78.6)	(78.7)	(78.9)	(79.3)
	(여성)	(55.6)	(57.0)	(57.9)	(58.4)	(57.0)	(57.8)	(58.3)	(59.1)
고용률	64.4	65.3	65.7	66.1	65.3	65.7	66.0	66.6	
(남성)	(74.9)	(75.7)	(75.7)	(75.8)	(75.7)	(75.7)	(75.7)	(76.1)	
(여성)	(53.9)	(54.9)	(55.7)	(56.2)	(54.9)	(55.6)	(56.1)	(56.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편, 실업자는 2017년 1~10월 전년동기대비 12천 명 증가했는데, 3분기부터는 감소로 전환되었다(2분기 54천 명 ↑, 3분기 19천 명 ↓, 10월 27천 명 감소). 실업률은 1~10월 평균 기준 전년과 동일한 3.8%이지만, 3분기에는 0.1%p 감소한 3.5%, 10월에는 0.2%p 하락한 3.2%로 나타났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0%로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 실업자(좌) 및 실업률(우)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II. 2017년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1. 20대 청년층 고용률 감소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올해 꾸준히 상승했으나, 이는 20세 미만층에서 고용률이 소폭 상승해 나타난 현상으로 20대에 한정해 보면 고용률이 내내 감소한 한 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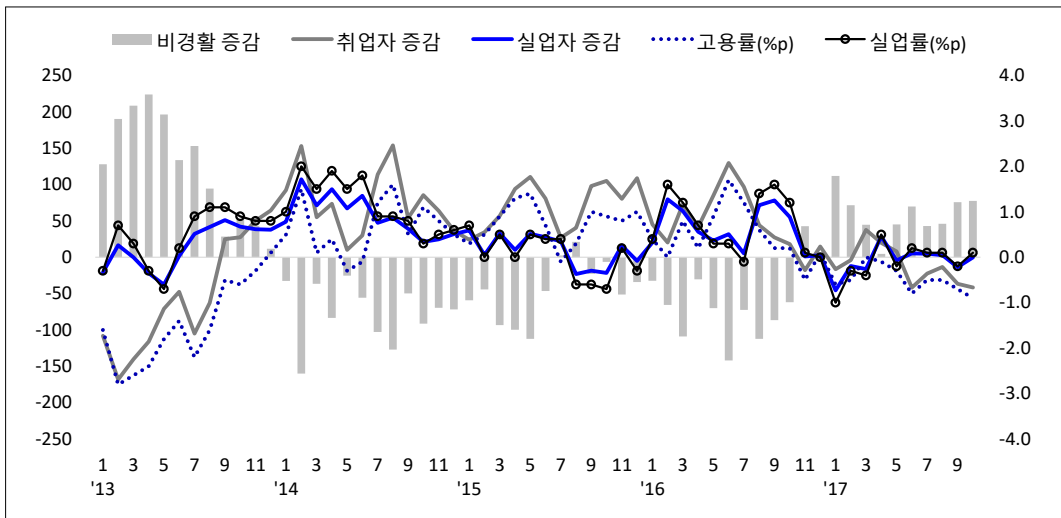
20대¹⁾에 국한해 살펴보면, 고용률은 2017년 내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다. 1~10월 평균으

1) 만 나이 19~29세로 분석하였다.

로는 전년대비 0.5%p 감소한 55.7%(3분기 56.4%, 10월 55.4%)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1~10월 평균 10.0%로 전년동기보다 0.1%p 감소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대 초반(19~24세)에 국한해 보아도 고용률은 1~10월 평균 43.1%(3분기 44.0%, 10월 41.9%)로 전년 동기대비 0.5%p 감소하였다. 한편, 실업률도 동기간 10.7%로 전년동기에 비해 0.4%p 감소(3분기 9.5%, 10월 9.1%)하였다.

20대 후반(25~29세)의 경우 고용률은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1.0%p 감소한 68.8%(3분기 68.9%, 10월 69.1%)로 나타났다. 20대 초반과 달리 실업률도 2017년 6월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며 1~10월 0.2%p 증가한 9.6%(3분기 9.3%, 10월 8.4%)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17년 1분기 증가 전환된 이후 약 5만 명씩 매분기 증가추세(거의 모두 취업준비자)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청년층(19~29세)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좌축) 및 고용률, 실업률 증감(우축) 추이
(단위: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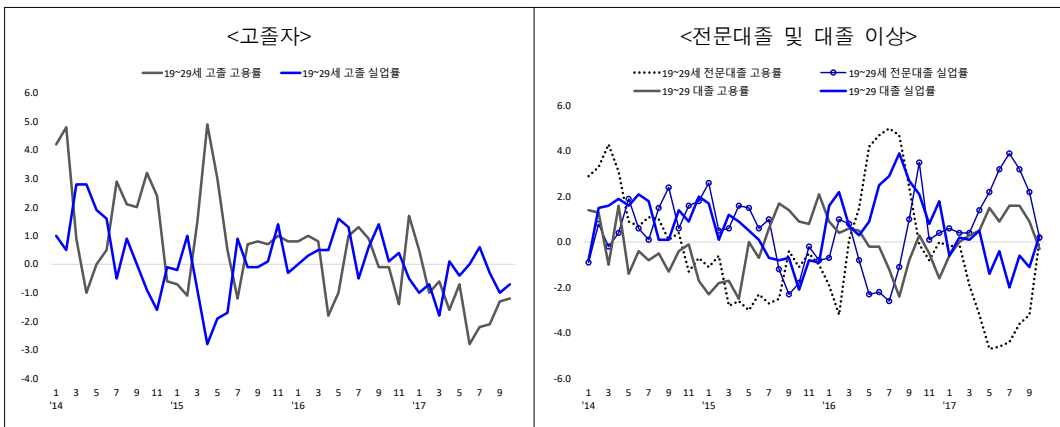
19~29세 청년층 고용률 하락은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과 전문대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4년제 대졸자 고용률은 증가하였다. 4년제 대졸자 고용률 증가는 연초부터 나타난 현상이긴 하지만 10월에는 감소하였고(그림 4 참조), 올해의 증가는 지난해 감소했던 기저의 반영으로도 볼 수 있어 연말과 내년 초까지 지켜봐야 신규채용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인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수치로만 보면 4년제 대졸 취업자는 주로 제조업 전문가 직업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여성 전문가 직업군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몇 년간 특성화고 졸업생 중심으로 고졸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했으나, 2017년에는 고

졸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이들 학력층을 많이 흡수해왔던 제조업(생산직)과 음식·숙박업이 구조조정, 내수침체 등으로 위축되면서 이들 산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 또는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다. 전문대졸 고용률 감소도 제조업(주로 생산직) 위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지난 몇 년간 무상보육 확대를 계기로 여성 전문대졸자 보육교사 진입이 크게 늘었는데, 어린이집이 포화상태에 도달하면서 최근 2년간 고용성장이 멈춘 것도 전문대졸 고용률 감소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그림 4] 청년층(19~29세) 졸업자 학력별 고용률 및 실업률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인구가 증가하는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의 특징이 있다면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다만, 이름과 달리 구직단념자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쉬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2017년 10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고졸 구직단념자 중 68%가량이 취업준비 중이라고 응답했고, 23%만이 쉬었다고 응답했다. 전문대졸 구직단념자는 취업준비 72%, 쉬었음 22%, 가사 5%, 대졸 이상 구직단념자는 취업준비 83%, 쉬었음 15%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 거의 모두 대기업 인적성 시험, 공무원 시험, 각종 자격증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다. 취업준비자는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57천 명 증가(3분기 67천 명, 10월 15천 명)했다.

각 연도 5월에 조사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년 미취업자 중 시험준비자 비중은 2017년에 45.0%, 미취업자 중 공시생 비중은 20.7%로 나타났다. 경기가 안 좋았던 2016년에 전년동월비 공시생 숫자가 약 32천 명 증가했으며, 2017년 5월에는 전년동월비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미취업(실업+비경활) 청년층 시험준비 및 공시생 비중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미취업	시험준비	공시준비	시험준비 비중	공시준비 비중
2007	1,404	405	212	28.8	15.1
2008	1,406	428	226	30.5	16.1
2009	1,379	400	193	29.0	14.0
2010	1,299	395	171	30.4	13.2
2011	1,281	420	170	32.8	13.3
2012	1,268	419	175	33.1	13.8
2013	1,254	451	198	36.0	15.8
2014	1,267	502	198	39.6	15.6
2015	1,336	510	249	38.2	18.6
2016	1,322	550	281	41.6	21.2
2017	1,388	624	287	45.0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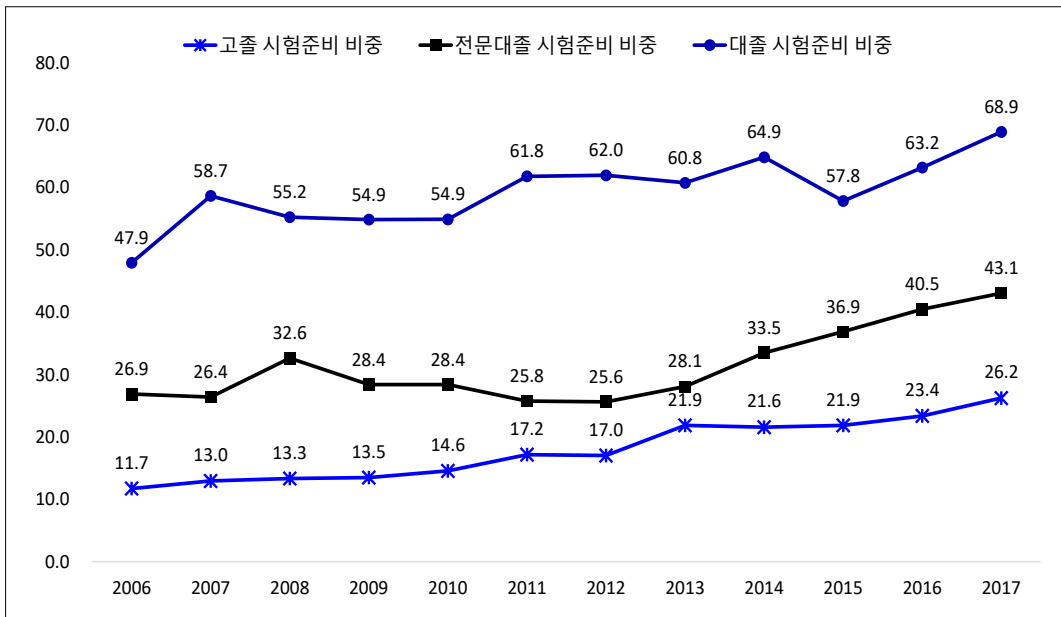
주 : 1) 시험준비는 방송, 신문 등 언론사, 공사, 공단 등 국공영기업체, 대기업 등 일반기업체, 교원임용고시, 사법시험 및 5급, 7급, 9급 공무원(경찰, 소방, 군무원 포함),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미용사 등의 자격증을 포함함.

2) 공시생은 공사, 임용고시, 사법시험 등 5급 이상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준비생임.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 연도 5월.

〈그림 5〉 청년층(19~29세) 졸업생 미취업자의 학력별 시험준비자 변화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시험준비는 방송, 신문 등 언론사, 공사, 공단 등 국공영기업체, 대기업 등 일반기업체, 교원임용고시, 사법시험 및 5급, 7급, 9급 공무원(경찰, 소방, 군무원 포함),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미용사 등의 자격증을 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각 연도 5월.

졸업 미취업자로 제한해서 보면, 대졸 미취업자 중 청년 시험준비자 규모는 2017년에 68%를 상회하며, 전문대졸 미취업자 중에서는 43.1%, 고졸 미취업자 중에서는 26.2%로 학력에 따라 다른 취업활동 패턴이 나타나지만, 모든 학력계층에서 과거에 비해 미취업자 중 시험준비자 규모가 증가해 왔다는 공통점도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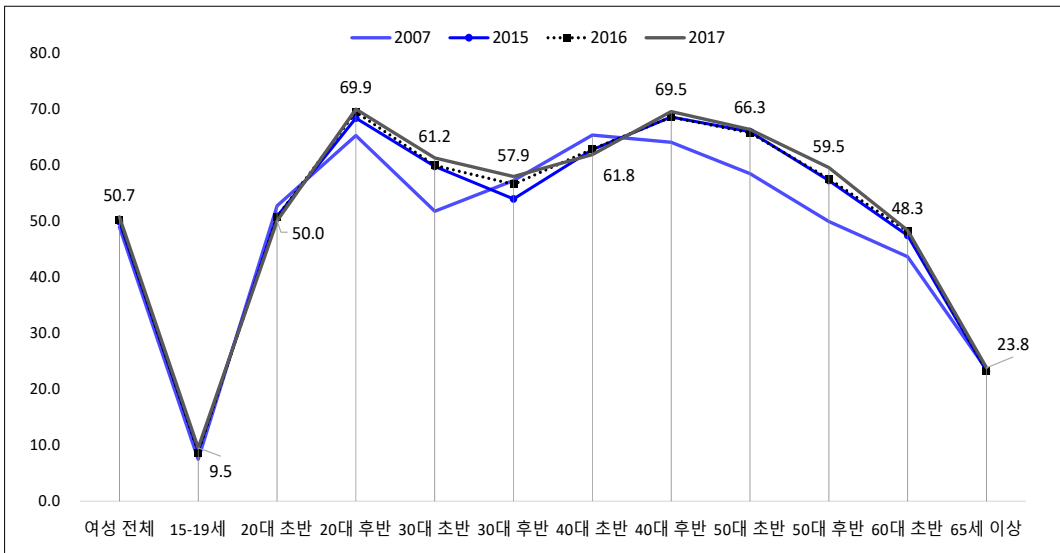
2. 30대 후반 기혼여성 고용률, 2016년 이래 꾸준히 증가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30대 초반까지 노동시장 진입연령대가 연장된 상태인데, 30대 초반 남성(2017년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1.1%p 감소한 87.3%)과 미혼 여성의 고용률(2.1%p 감소한 80.1%)이 감소했다. 20대와 마찬가지로 경기회복이 아직까지 신규채용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반면 30대 초반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2017년 1~10월 평균 1.0%p 증가한 50.1%로 나타났다. 이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30대 초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3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은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남성과 같이 상승한 가운데, 30대 후반 기혼 여성 고용률도 2016년 1분기 증가로 전환된 이후 증가추세가 지속되어 2017년 3분기에는 0.7%p 증가한 53.6%를 기록했다. 혼인과 자녀출산으로 나타나는 M커브의 저점이 30대 후반으로 이동하면서 이 연령대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몇 년째 하락하거나 정체된 상태를 유지해온

[그림 6] 여성 연령별 고용률 변화 추이(각 연도 1~10월 평균)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운데 나타난 상승추세이기 때문에 30대 초반 기혼여성처럼 고용률 증가가 지속될지 여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남성 40대 고용률은 2017년 1~10월 평균 92.6%로 전년동기에 비해 0.3%p 상승하였으며, 여성 40대 고용률도 65.9%로 전년동기에 비해 0.1%p 상승하였다. 다만, 4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만혼화, 늦은 출산의 영향을 크게 받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4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은 경력단절 후 복귀 등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의 영향으로 동기간 꾸준히 상승세에 있었고, 올해도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전년동기대비 생산가능인구 증감			
	연도			1~10월				2017. 1~10	2015. 1~10	2016. 1~10	2017. 1~10
	2014	2015	2016	2015. 1~10	2016. 1~10	2017. 1~10					
전 체	533	337	299	326	296	330	26,536	507	408	341	
15~19세	20	0	-5	-1	-6	12	254	-74	-104	-102	
20대	56	68	53	62	64	-16	3,734	57	50	28	
20~24세	81	62	-5	65	-2	-42	1,378	49	0	-58	
25~29세	-25	6	57	-3	66	26	2,356	9	50	86	
30대	-21	-38	-36	-39	-35	-7	5,631	-85	-85	-80	
30~34세	12	-45	-137	-39	-138	-103	2,630	-117	-154	-145	
35~39세	-34	7	102	-1	102	96	3,001	31	70	65	
40대	38	-14	-29	-15	-25	-50	6,589	-20	-50	-80	
50대	239	149	92	151	90	138	6,208	187	127	75	
50~54세	50	25	-35	29	-38	-17	3,238	-1	-37	-49	
55~59세	189	124	128	122	128	155	2,970	187	164	124	
60~64세	96	137	130	138	121	170	1,905	179	209	219	
65세 이상	105	34	93	30	87	83	2,215	263	261	28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베이비부머로 인해 55~64세 연령층 경제활동 활발

50대 후반에서 60세 초반 연령층 취업자는 325천 명 증가(3분기 289천 명, 10월 301천 명)하여 사실상 취업자 수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연령대에 있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경제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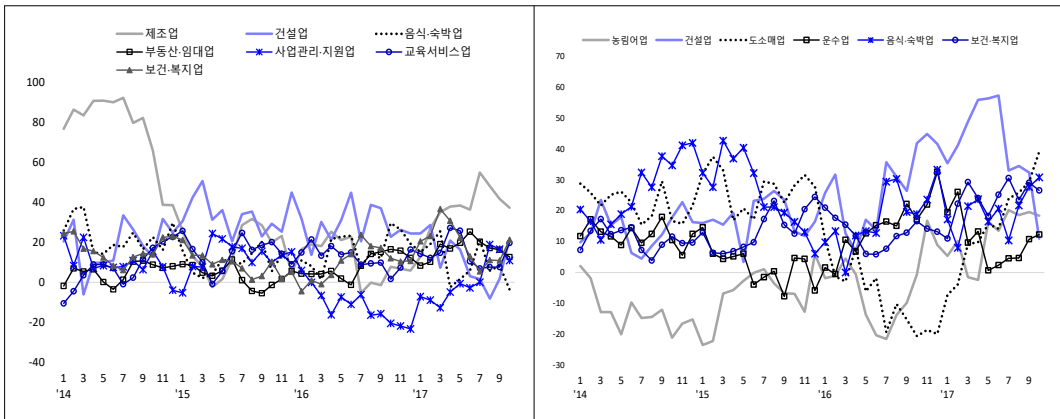
50~54세 연령층은 이미 인구감소가 나타나고 있어 취업자 수도 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17천 명 줄었으나, 고용률은 78.1%로 전년동기대비 0.5%p 증가했다. 50대 후반은 1.6%p 증가한 72.4%, 60대 초반 연령층은 동기간 1.2%p 증가한 60.7%로 나타났다.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은 1~10월 평균 기준으로는 고용률 기록을 경신 중에 있다. 50대 후반 취업자는 주로 제조업(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37천 명 증가)과 도소매업(27천 명 증가), 부동산 및 임대업(17천 명 증가), 건설업(12천 명 증가)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60대 초반은 농림어업(12천 명 증가), 건설업(41천 명 증가), 보건 및 사회복지업(20천 명 증가)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65세 이상은 취업자 수는 83천 명 늘었으나 고용률은 0.1%p 감소하였다. 65세 이상 인구 7,188천 명 중 70세 이상 인구가 68.5%를 차지하므로 고용률 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림 7] 50대 후반(좌측) 및 60대 초반(우측)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4. 상용직 중심 고용증가

경기가 좋으면 비교적 일자리 질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구조조정과 경기둔화 영향으로 2016년 하반기 크게 둔화되었던 상용직 증가폭은 2017년 들어 점차 커지고 있다(1분기 322천명↑, 2분기 338천 명↑, 3분기 408천 명↑). 반면, 임금근로 일자리가 위축되면 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영업 창업으로 내몰리거나 한계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지연해 자영업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자영업 증가가 바로 이런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올해 들어 자영업 증가폭은 1분기 17만 명 증가로 정점을 찍은 이후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둔화되었으나, 아직까지 감소 전환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다(3분기 31천 명 증가). 아마도 내수 성장이 더더 임금근로로 일자리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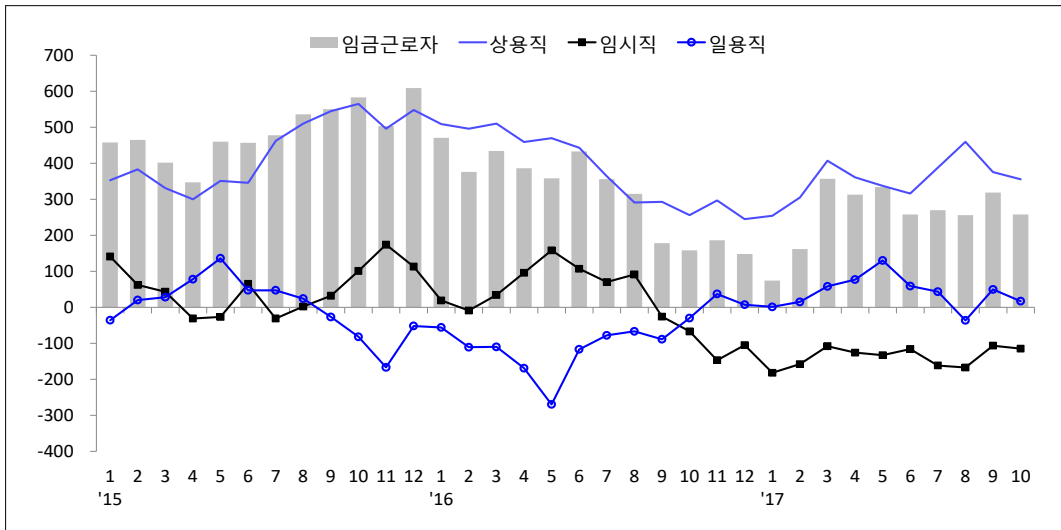
	연 도			1~10월			취업자 수
	2014	2015	2016	2015. 1~10월	2016. 1~10월	2017. 1~10월	2017. 1~10월
전 체	533	337	299	326	296	330	26,536
임금근로자	548	487	317	474	347	260	19,775
상용직	443	432	386	414	409	356	13,305
임시직	140	54	18	36	47	-137	4,972
일용직	-35	1	-88	24	-110	41	1,498
비임금근로자	-15	-151	-18	-147	-51	70	6,76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0	31	-20	42	-33	24	1,579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9	-120	28	-125	12	60	4,070
무급가족종사자	-16	-61	-25	-65	-29	-14	1,11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임시직은 2016년 11월부터 1년 동안 10만 명 이상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40대, 산업별로는 제조업(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5만 명 ↓), 숙박 및 음식점업(66천 명 ↓)에서 감소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 위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용직은 업황이 좋았던 건설업에서 71천 명 증가한 데에 힘입어 1~10월 평균 41천 명 증가하였다.

〈그림 8〉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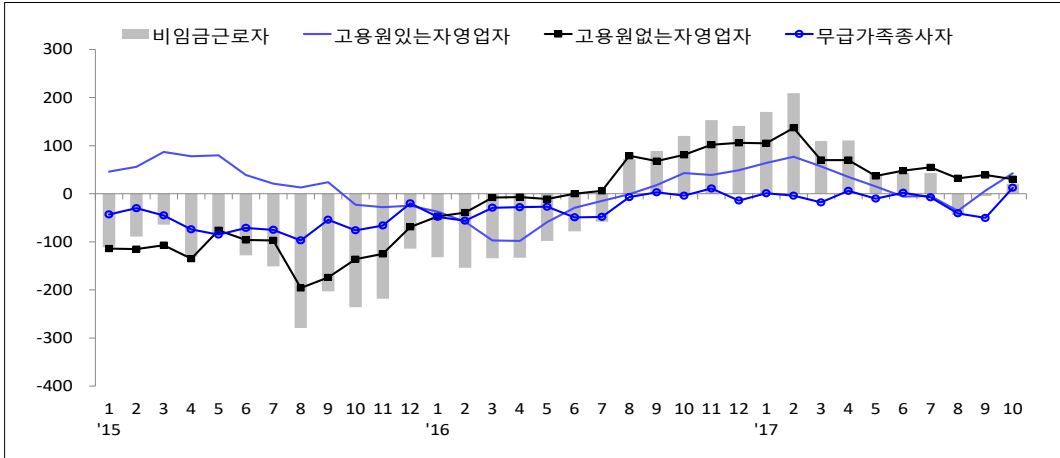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9)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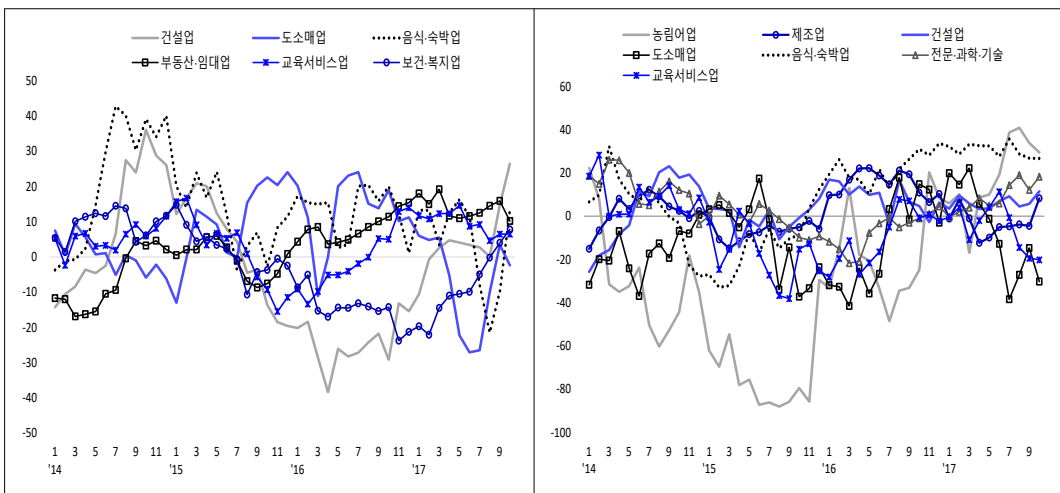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분기 들어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를 이어가고 있는데, 건설업 경기가 좋았던 데에 힘입어 부동산산업에서 꾸준히 증가를 이어가고 있으며, 음식숙박업에서도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음식숙박업, 농림어업에서 증가했으며, 건설업에서도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보인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주로 55~64세, 농림어업이 많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5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 10)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좌) 및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우)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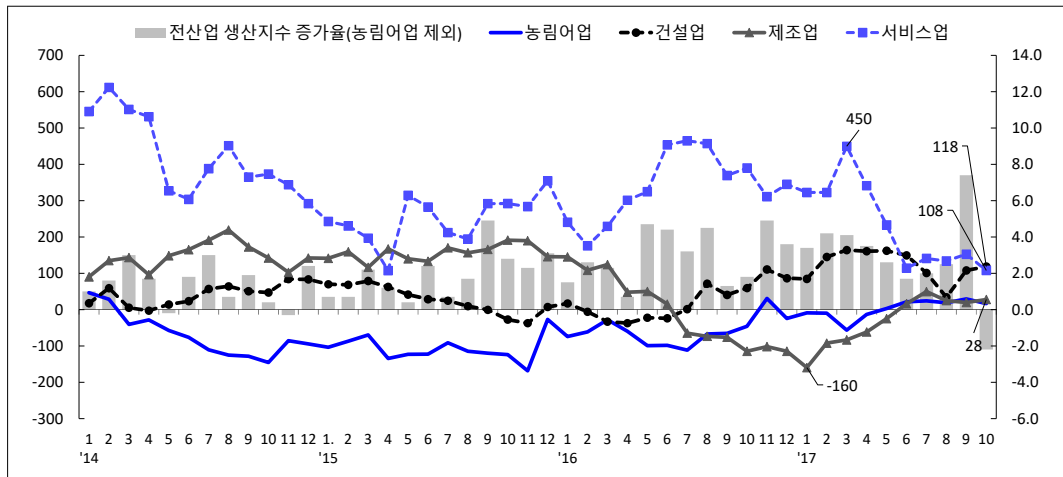
5. 제조업 고용 완만히 회복

산업별 고용²⁾을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 감소 흐름이 2017년 1분기(112천 명 감소)까지 이어졌지만, 3분기 들어 증가 전환(31천 명)하면서 회복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선진국 중심으로 해외시장 여건이 좋아 당분간 수출, 생산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용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건설경기 호조에 따라 2017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157천 명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증가를 이어가고 있지만, 3분기(81천 명)들어 다소 둔화되는 등 건설경기 하락에 따라 고용도 역시 완만한 둔화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끌던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근 빠르게 축소되면서 1~10월 평균 기준 2016년 전년동기대비 341천 명 증가에서 2017년 전년동기대비 232천 명으로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제조업에서는 최근 들어 고용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상용직 위주의 취업자 증가(3분기 105천 명)가 나타나고 있다. 30, 40대 제조업 고용은 여전히 감소하는 한편, 50세 이상 중고령층 제조업 취업자는 66천 명 증가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같은 외부적 충격에 영향을 받았던 세부 산업의 주된 고용 연령대가 30, 40대³⁾인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산업별 취업자 증감(좌축) · 전산업 생산지수 증가율(우축)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전산업생산지수」, KOSIS.

2) 본문에는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위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산업별 취업자 수 및 구성비는 <부표 2> 참조.
 3)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준으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취업자 중 30대 30.4%(58천 명), 40대 30.4%(58천 명)이다.

〈표 5〉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4	2015	2016	2015.1~10	2016.1~10	2017.1~10
취업자 전체	533	337	299	326	296	330
농림어업	-68	-107	-59	-109	-71	3
제조업	146	156	-5	154	16	-28
건설업	42	27	22	36	7	123
서비스업	424	250	338	236	341	23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조선업(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고용보험 행정통계상의 피보험자 감소⁴⁾로도 확인이 되는데, 2017년 10월 42천 명의 피보험자가 감소하면서 19개월 연속 감소추세에 있고 대형사업장 위주로 감소폭은 다소 완화되는 중이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사업체 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3분기에도 전년동월대비 22천 명 수준의 감소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유가변동 등에 따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3.4%)과 수출(5.9%)이 동반 증가하였고, 제조업 고용 비중이 높은 기타 기계 및 장비(16.5%), 자동차 및 트레일러(2.7%)에서 생산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고용 개선 지속 가능성이 기대된다. 화학제품 업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꾸준히 증가(3분기 6천 명, 10월 5천 명)하고 있으며 기계장비 분야에서는 10월 14천 명의 피보험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들어 반도체 수출이 수출물량지수 기준 1~9월 평균 4.5% 증가, 금액기준 18.5% 증가하는 호황 국면이다. 반도체 투자도 126.9% 급증⁵⁾했고 전체 설비투자가 1~9월 평균 18.7% 증가하면서 향후 반도체 관련 기계, 전자부품 관련 제조업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다만, 낮은 제조업 평균가동률(1~9월 평균 71.8)이 유지되고 있으며 늘어난 설비투자의 77.2%가 반도체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 고용 개선의 폭이 어느 정도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둔화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자영업자 증가 둔화와 함께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10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08천 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2016년에는 서비스업이 건설업

4)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17.10월 노동시장 동향 보도자료」.

5) 한국은행(2017. 10), 「경제전망보고서」.

과 함께 제조업 고용감소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했으나, 2017년에는 내수소비(2.6% 증가)의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둔화된 것이다. 지난해 특히 3분기에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이 컸던 기저변동 영향에 더해, 내수 회복속도가 빠르지 않아 서비스업 자영업자 둔화속도(2분기 53천 명 증가, 3분기 5천 명 감소)를 임금근로자 증가속도(2분기 179천 명 증가, 3분기 176천 명 증가)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부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순으로 취업자 수가 늘었다. 고령화에 따라 꾸준히 성장세가 유지되는 보건·사회복지업(64천 명 증가)은 여성(92천 명 증가), 50대 이상(62천 명 증가), 간호사, 복지업의 사회복지관련 종사자가

〈표 6〉 서비스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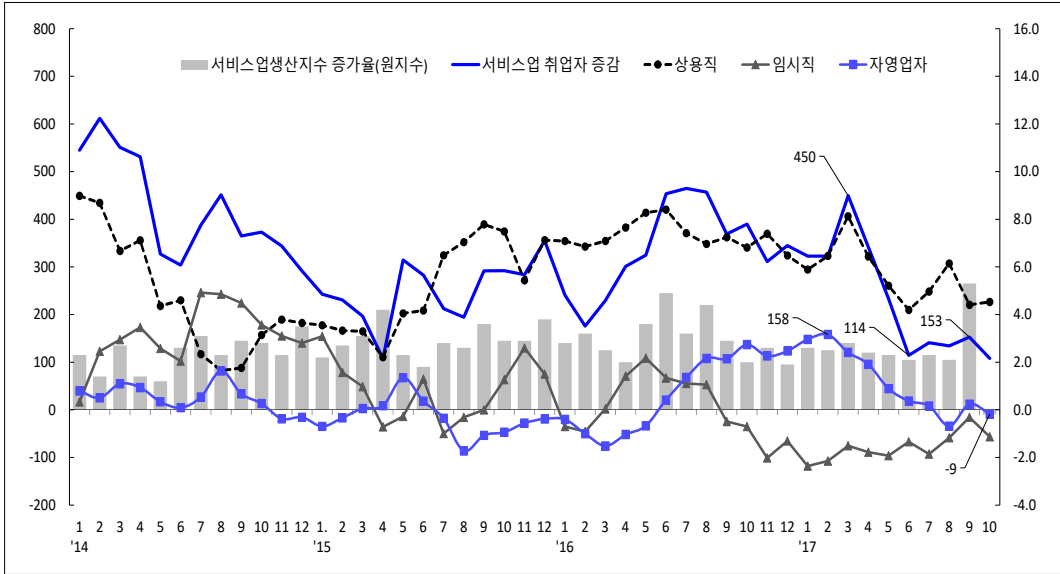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4	2015	2016	2015. 1~10	2016. 1~10	2017. 1~10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424	250	338	236	341	232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236	258	365	247	369	282
	임시직	156	41	4	29	22	-78
	일용직	-15	-10	-65	1	-69	-20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1	21	15	22	10	18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6	-39	22	-38	11	39
	무급가족종사자	20	-23	-3	-25	-1	-9
성 별	남성	170	32	136	24	136	68
	여성	254	218	203	212	205	164
연령별	20대	29	51	53	41	61	-23
	20~24세	74	43	5	48	2	-33
	25~29세	-45	8	47	-6	58	10
	30대	-7	-50	26	-48	24	0
	40대	43	-48	20	-47	17	-4
	50대	130	129	84	124	88	78
	60세 이상	209	164	165	162	162	165
직종별	전문가	260	50	77	49	64	66
	사무종사자	101	167	196	163	201	168
	서비스종사자	62	34	65	24	76	-3
	판매종사자	146	78	78	86	72	125
	단순노무종사자	24	33	136	12	147	6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2]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좌축) · 생산증가율(우축)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표 7>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4	2015	2016	2015. 1~10	2016. 1~10	2017. 1~10
서비스업	424	250	338	236	341	232
도매 및 소매업	132	-8	-54	11	-61	47
운수업	-6	2	3	2	5	-25
숙박 및 음식점업	127	81	98	82	99	11
출판·영상·방송 등	22	58	14	57	11	1
금융 및 보험업	-26	-48	7	-55	6	-15
부동산 및 임대업	22	27	36	23	36	50
전문·과학 등	3	23	54	17	60	-10
사업시설관리 등	7	68	44	69	47	-4
공공행정·국방 등	-8	-21	57	-37	62	46
교육서비스업	59	11	28	11	23	60
보건·사회복지 등	139	77	82	79	82	64
예술·스포츠 등	1	31	-18	36	-25	21
협회 및 단체, 수리	-13	-22	-5	-31	1	-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특성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4	2015	2016	2015. 1~10	2016. 1~10	2017. 1~10
보건사회복지 취업자 증감		139	77	82	79	82	64
성별	남성	43	12	-3	12	1	-28
	여성	96	64	84	67	80	92
연령별	20대	17	-1	8	1	4	13
	20~24세	-4	0	19	0	15	0
	25~29세	21	-1	-11	1	-11	13
	30대	11	5	10	4	14	-24
	40대	12	15	6	18	6	13
	50대	51	25	19	25	21	6
	60세 이상	50	35	37	32	35	56
직종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9	39	12	44	10	58
	서비스종사자	30	27	49	25	50	1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포함된 전문가 직종(58천 명) 위주로 취업자 증가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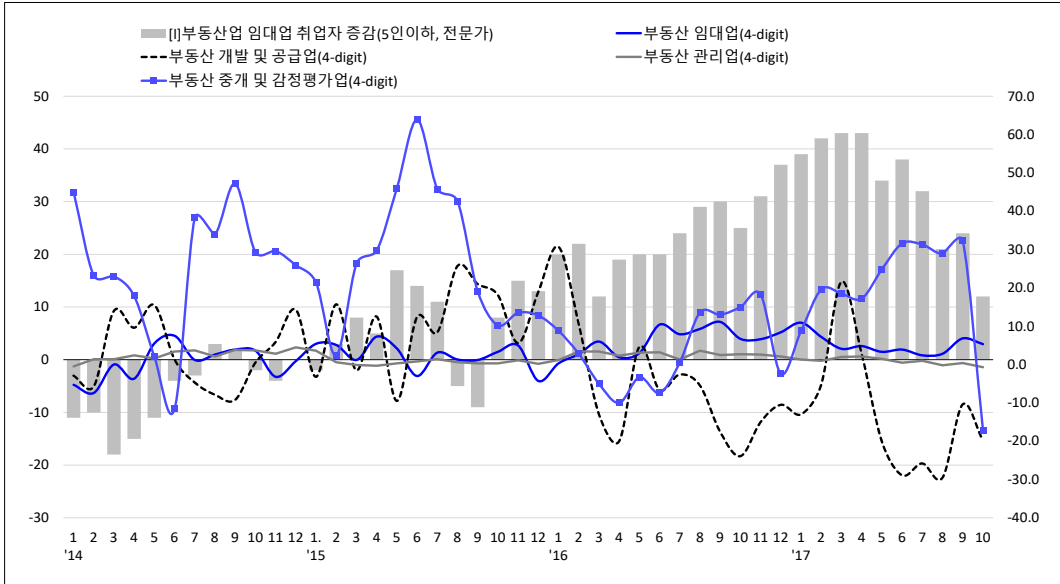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2017년 1~10월 평균으로는 취업자가 60천 명 증가했지만, 상반기에 증가폭이 컸을 뿐 최근 들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다(3분기 전년동기대비 36천 명 증가, 10월 전년동월대비 5천 명 증가). 상반기 교육서비스업 증가로 전체적인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폭이 커졌는데, 주로 여성(47천 명), 5~29인 사업체(53천 명), 40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31천 명)의 증가폭이 컸다. 업종 소분류 확인이 가능한 지역별고용조사 2017년 상반기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주로 초등교육기관(29천 명 ↑), 중등교육기관(23천 명 ↑)에서 증가했다. 지난 몇 년간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오히려 다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2012년 1-10월 평균 175만 명→2014년 동기간 180만 명→2017년 동기간 190만 명), 방과 후 교육 등 늘어난 공교육 서비스에 따른 관련 고용증가가 중요했다. 올해에도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는 2017년 1~10월 평균 취업자가 50천 명 증가했으며 부문별로는 50대 이상(37천 명), 1~4인 미만 사업체(36천 명), 전문가(36천 명) 위주로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종사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5인 이하 사업체의 전문가 직종에서만 1~10월 평균 33천 명 고용이 늘었고, 통계청의 생산지수로 보아도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의 생산만 평균 23.6%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분양시장 활성화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2017년 1~10월 평균 47천 명 증가했다. 2016년 1~10월 61천 명 감소했

[그림 13] 부동산업 세부산업별 생산증가율(불변지수, 2010=100)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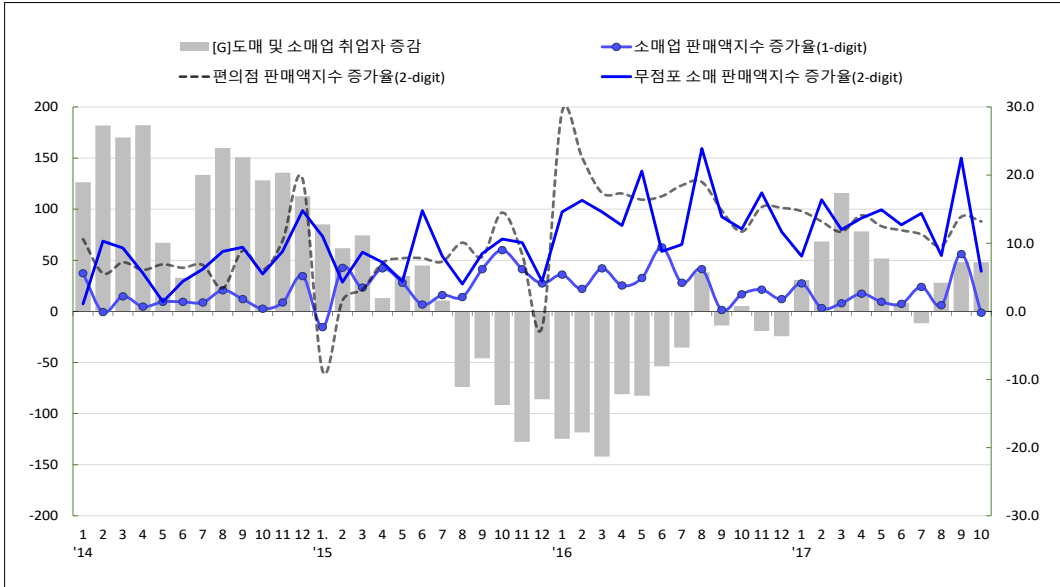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그림 14] 업태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불변지수, 2010=100)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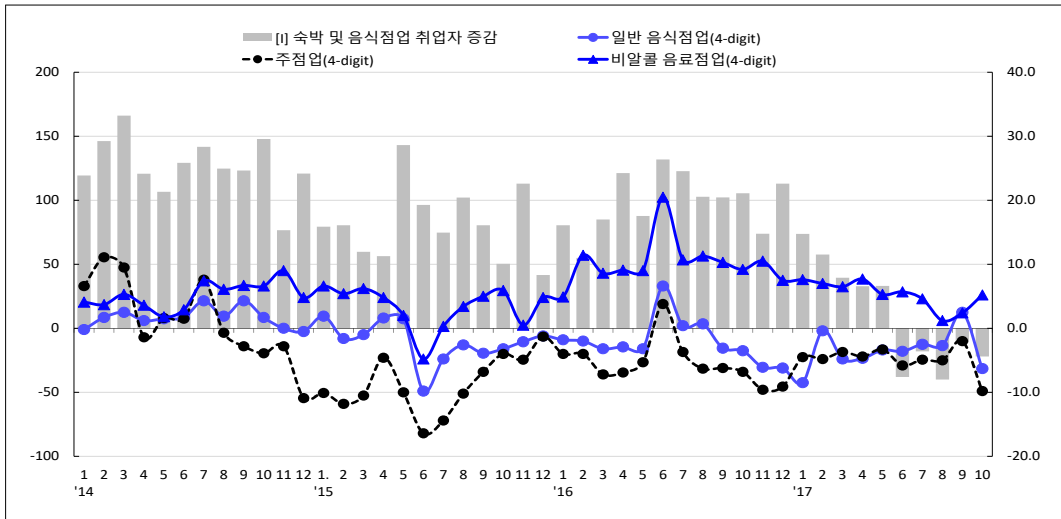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던 것에서 회복된 모습인데, 상용직(84천 명), 1~9인 소규모 사업체(46천 명)에서 주로 증가했다. 불변지수(2010=100) 기준으로 편의점(12.5%), 무점포소매점(13.6%)을 중심으로 소매 판매액 지수가 증가하고 있고,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준으로 보면 최근 몇 년간 출점이 확대되고 있는 미용 및 건강관련 유통체인과 애견용품숍을 포함하는 기타상품전문소매업에서 고용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1인 가구 증가로 집근처 소비가 트렌드이며, 미용 및 건강 유통체인, 애견용품 모두 트렌드라는 점에서 고용증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를 이끌던 숙박 및 음식점업은 취업자 증가폭이 2016년 말부터 경기침체 영향으로 둔화추세에 들어갔고, 최근 들어 감소 전환된 상태이다(6월 34천 명 감소 전환, 10월 18천 명 감소). 숙박업은 취업자 규모가 작아 이 업종의 고용흐름은 음식점업에 의해 좌우되는데, 지난 몇 년간 음식업 고용증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비알콜·음료점업의 생산 증가세가 2016년 6월을 정점으로 꾸준히 둔화되었으며, 일반 음식점업 생산 증가율은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산업으로 대거 흡수되고 있던 청년층 취업자도 감소하고 있다. 아직까지 내수 회복속도가 완만하고, 생산지수가 9월에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상승추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금융위기 이후 음식업 고용성장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데, 개인의 만족을 위한 소비 트렌드와 맞물린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더해 맞벌이화도 외식업 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내수회복만 되면 내년 2분기나 3분기 정도부터는 고용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음식점 및 주점업 세부산업별 생산증가율(불변지수, 2010=100)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도 2017년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음식점업과 함께 서비스업 취업자 수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업종에는 연구소, 대기업 본사,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산업, 디자인과 기획사 매니저 등이 포함되는데,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산업은 고용이 증

〈표 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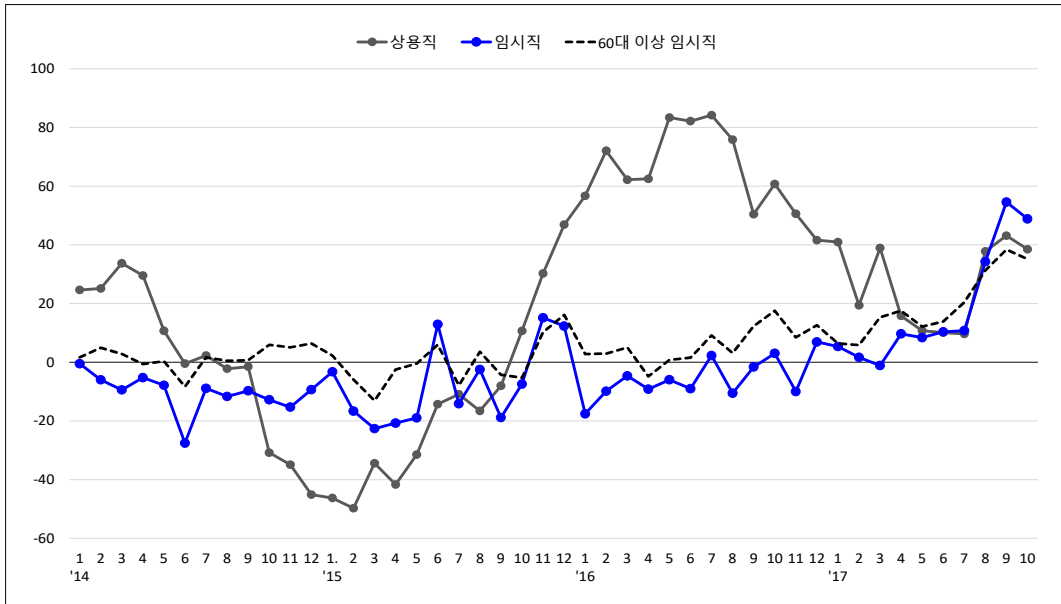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4	2015	2016	2015. 1~10	2016. 1~10	2017. 1~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3	23	54	17	60	-10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15	15	68	7	76	-18
	임시직	0	7	-4	7	-4	-6
규모별	1~4인	25	-1	-21	2	-23	18
	5~9인	-13	10	3	8	7	7
	10~29인	-20	-12	28	-17	27	6
	30~99인	4	4	14	8	6	23
	100~299인	14	20	5	18	8	-27
	300인 이상	-7	2	25	-2	36	-3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6〉 공공행정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및 60대 이상 임시직 증감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한 반면, 주로 고용규모가 큰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64천 명)한 것으로 보아 제조업 관련 대기업 본사 부문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업종의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고용이 예상대로 향후 꾸준히 증가하면 이 산업의 고용도 함께 증가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행정부문 취업자 수는 2017년 1~10월 평균 46천 명 증가하였는데, 9월 98천 명, 10월 84천 명 증가로 최근 들어 가파른 고용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임시직, 60대 이상 고령층(9월 38천 명, 10월 35천 명), 36시간 미만 취업자(9월 29천 명, 10월 27천 명)에서 증가한 것으로 보아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 고용증가폭이 최근 두 달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 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10월 27천 명 감소로 감소폭이 소폭 커졌으며 1~10월 평균 기준으로는 4천 명 감소했고 이는 지난해(47천 명 증가)와는 대조적인 고용감소이다. 임시·일용직(-20천 명)에서의 고용감소였고, 특히 단순노무종사자(-22천 명)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 산업의 단순노무직 종사자 상당수가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노무직)에 속한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경비원은 원래 감소추세에 있었지만, 청소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직업 소분류가 확인가능한 지역별고용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2017년 상반기에는 두 직업군 모두 증가해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에서만 단순노무종사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청소 및 경비 분야 고용의 외주화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겠으나, 좀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0〉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 서비스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4	2015	2016	2015 1~10	2016 1~10	2017 1~10
사업관리지원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7	68	44	69	47	-4
증사상 지위별	상용직	-2	39	6	46	1	13
	임시직	-18	2	32	-7	38	-2
	일용직	10	26	6	27	9	-18
직종별	사무종사자	-1	-3	8	-1	4	14
	단순노무종사자	2	59	18	57	24	-2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6)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으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종사자 수 전체(자영업자 제외) 2017년 1~9월 평균 6천 명 증가
- 7)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준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단순노무 종사자 중 69.8%(460천 명)이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노무직

7. 정점에 다다른 건설업 고용 증가

건설업 고용은 2016년 7월 증가 전환 후 그 폭이 확대되면서 2017년 3월에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전년동월대비 164천 명 증가를 보였고, 1~10월 평균으로는 123 천 명 증가를 나타

〈표 11〉 건설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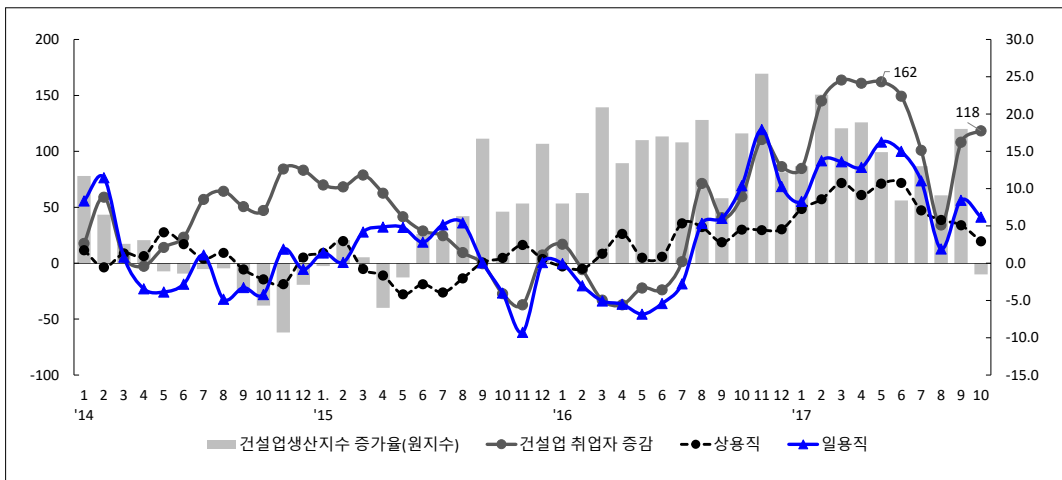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4	2015	2016	2015. 1~10	2016. 1~10	2017. 1~10
건설업 취업자 전체		42	27	22	36	7	123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4	-4	18	-7	15	52
	임시직	25	18	5	19	9	-11
	일용직	0	9	12	17	-5	72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9	3	-24	7	-26	5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	-1	9	-3	10	6
직종별	전문가	5	-19	12	-21	10	12
	사무종사자	7	-8	-9	-8	-13	21
	서비스종사자	50	52	-6	57	-7	3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3	10	-5	12	-6	4
	단순노무종사자	-17	-4	31	-1	21	6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7〉 건설업 취업자 증감(좌축) · 생산증가율(우축)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건설업경기동향조사」, KOSIS.

내며 2017년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 3분기 들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된 양상(81천 명)이다. 종사상 지위로 보면 상용직과 일용직 증가폭이 컸으며 상용직(52천 명 증가)에서는 전문가(11천 명), 사무종사자(11천 명), 기능원 및 장치기계조작(32천 명) 등 대부분의 직종에서 고용 증가가 나타났고, 일용직(72천 명)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51천 명) 중심으로 증가했다.

건설업의 생산지수는 상반기보다는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은행의 건설투자 전망⁸⁾도 2017년 연간 6.9% 증가에서 2018년 연간 0.2% 증가로 크게 둔화되는 흐름이어서 건설업 고용도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Ⅲ.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고용전망

한국은행은 2017년 경제성장률(연간) 전망치를 1월에는 2.5%, 4월 2.6%로, 7월 2.8%, 가장 최근인 10월에는 3.0%으로 점차 상향조정하여 발표하였다. 대외 경제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세계교역이 1~7월 중 4.2% 증가하는 뚜렷한 회복세(최근 5년 평균 2.3%)를 보인다는 점 등이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2015년 하반기 이후 활발해진 아파트 분양에 힘입어 경제를 이끌던 건설업은 2017년 하반기부터 건설수주 감소세(전년동기비 19.4% 감소⁹⁾)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에는 건설업 경기가

〈표 12〉 한국은행 2018년 경제전망

(단위 : %, 만명)

	2017. 1				2017. 4				2017. 7				2017. 10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세계경제성장률	3.2	3.4	3.3	3.4	3.4	3.5	3.4	3.5	3.4	3.4	3.4	3.5	3.5	3.5	3.5	3.6
경제성장률	2.4	2.6	2.5	2.8	2.6	2.7	2.6	2.9	2.8	2.9	2.8	2.9	2.8	3.2	3.0	2.9
민간소비	1.9	1.9	1.9	2.3	1.9	2.0	2.0	2.3	2.0	2.4	2.2	2.6	2.1	2.5	2.3	2.7
수출	2.9	2.0	2.4	2.8	4.0	2.6	3.3	3.5	4.3	2.7	3.5	3.6	4.2	3.3	3.7	2.4
취업자 수	26	27	26	28	28	29	28	30	36	35	36	35	36	33	35	34
실업률	4.1	3.6	3.9	3.8	4.0	3.5	3.8	3.7	4.1	3.5	3.8	3.7	4.1	3.6	3.8	4.0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도자료, 각 월.

8) 한국은행(2017. 10), 「경제전망보고서」.

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8년 건설경기 전망」.

〈표 13〉 고용탄력성 추이

	전 체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13	0.538	0.535	0.638	0.223	2.131
2014	0.644	0.997	0.733	1.917	1.315
2015	0.470	2.002	0.499	0.652	0.641
2016	0.412	-0.048	0.810	0.273	0.587
2017p	0.412				
2013. 1/4	0.511	1.092	0.535	-0.289	2.075
2/4	0.478	0.828	0.452	-0.079	1.947
3/4	0.526	0.166	0.640	0.277	2.216
4/4	0.624	0.278	0.894	0.777	2.206
2014. 1/4	0.793	0.630	0.951	1.404	1.119
2/4	0.523	0.697	0.761	1.907	1.416
3/4	0.598	1.507	0.669	2.139	1.438
4/4	0.615	1.688	0.575	2.619	1.278
2015. 1/4	0.547	2.953	0.421	2.289	0.885
2/4	0.498	3.782	0.468	1.309	0.653
3/4	0.399	1.726	0.478	0.551	0.478
4/4	0.456	1.490	0.636	-0.172	0.483
2016. 1/4	0.392	1.188	0.481	-0.354	0.560
2/4	0.326	0.307	0.707	0.187	0.685
3/4	0.465	-1.140	1.023	0.627	0.535
4/4	0.483	-0.904	1.055	0.892	0.594
2017. 1/4	0.487	-0.548	1.185	3.626	0.682
2/4	0.515	-0.160	0.652	2.346	0.387
3/4	0.292	0.109	0.346	-0.023	0.316

주: 2017년 연간 고용탄력성은 <표 14>의 하반기 고용전망을 전제한 수치임.

2017년 3분기 고용탄력성은 11월 속보치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올해보다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건설물량이 증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자 수 증가폭은 꾸준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 고용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영향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2017년 6월에 증가로 전환되며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수출 증가세가 양호한 글로벌 경기흐름의 영향으로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에 제조업 고용의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고용이 증가세를 유지할 경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연관 업종

의 고용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과 전문서비스 취업자가 증가하면 청년 대출자가 주로 흡수되는 업종 특성상 청년 취업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다.

내수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면 소매업의 고용도 올해에 이어 내년 초까지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다. 소매업은 1인 가구화와 맞물린 편의점 증가, 건강 및 미용 관련 유통체인을 중심으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상반기 소매업 고용 증가폭이 컸던 기저효과로 내년 상반기 소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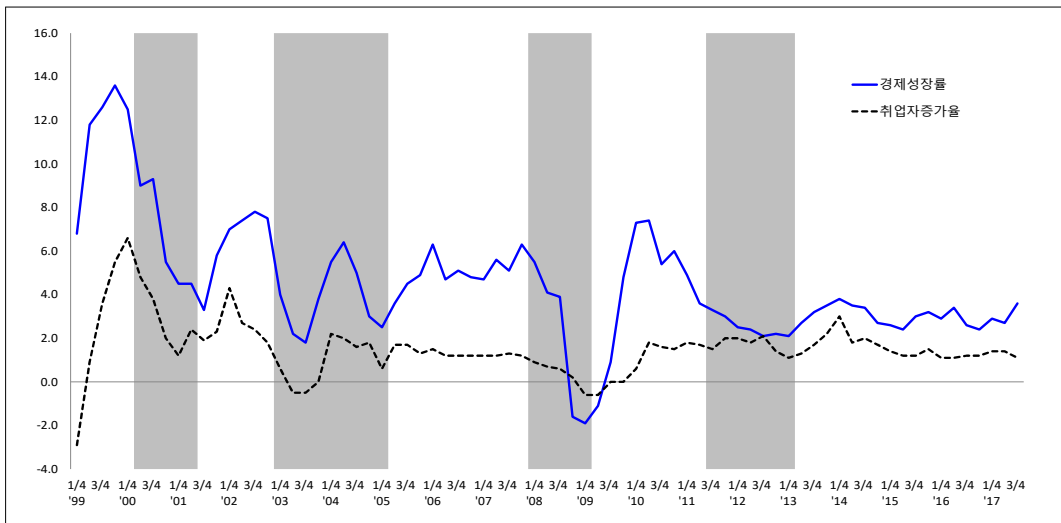
진입장벽이 낮아 구조조정과 새로운 업체 출현이 빠르게 진행되는 음식점업도 맞벌이화와 소비자 선호 변화라는 큰 트렌드가 있어 고용증가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 내수 경기 둔화 흐름이 개선 흐름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나마 개선 속도도 완만해 음식점업 고용둔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 상반기까지는 취업자 수 감소의 가능성이 높다.

교육서비스업은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증가(방과 후 학교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는 않다. 내년에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올 상반기 기저효과로 내년 상반기 취업자 수는 감소 가능성이 있다.

고령화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취업자 수 증가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공공행정은 내년도 실제 뽑게 될 공무원 증원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 증가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림 18]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주: 음영은 경기수축기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표 14〉 한국노동연구원 2017년 하반기, 2018년 고용지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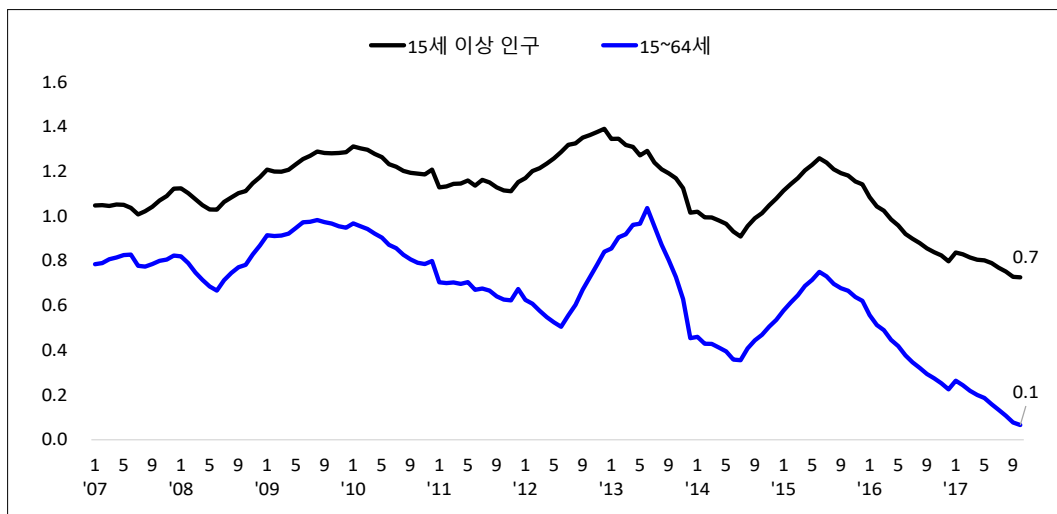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2017			2018p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2.8	3.2	3.0	2.9	3.0	2.9
생산가능인구	43,683	43,820	43,751	43,982	44,110	44,046
경제활동인구	27,459	27,706	27,582	27,754	28,007	27,881
경제활동참가율	62.9	63.2	63.0	63.1	63.5	63.3
취업자	26,335	26,783	26,559	26,622	27,089	26,855
(증가율)	1.4	1.1	1.2	1.1	1.1	1.1
(증감수)	364	283	324	287	305	296
실업자	1,125	922	1,023	1,132	918	1,025
실업률	4.1	3.3	3.7	4.1	3.3	3.7
고용률	60.3	61.1	60.7	60.5	61.4	61.0
비경제활동인구	16,224	16,115	16,169	16,228	16,103	16,165

주: *는 속보치, p는 전망치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고용지표는 동향분석실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한국은행, 「2017~18 경제전망」 보도 자료.

〈그림 19〉 15세 이상 인구 및 15~64세 인구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근거해 내년도 취업자 수를 전망하면, 2018년 취업자는 약 29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보다 소폭 둔화된 취업자 증가폭이다. 경제는 올해보다

0.1%p 낮은 2.9% 성장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15~64세 인구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보다 커지기는 어려운 인구 변동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구제약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구조적 제약요인이다. 이로 인해 개선되는 경기흐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크지 않겠지만,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7년 대비 각각 0.3%p씩 증가한 63.3%와 61.0%로 전망되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인구변화라는 제약요인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내년도 취업자 수 전망치는 개선된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유가인상 흐름이나 금리인상(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수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증가는 신규 출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인상 수준에 따라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지켜보아야 할 하향 요인이다. 앞서 언급한 여러 취업자 수 증가 요인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우연이 겹친다면 이보다 상향되어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시장이 침체되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자영업은 올초까지 크게 증가한 후 빠르게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경기회복 흐름에 따라 노동시장이 보다 개선되면 자영업은 감소할 것이므로, 내년에는 자영업 감소, 상용직 중심의 일자리 증가세가 올해보다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2018년에는 취업자 수의 증가보다는 일자리 구성에서의 개선으로 노동시장 지표 개선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

2017년에는 여성과 베이비붐(대략 55~65세) 세대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되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 2005년)한 일본의 경우 1997년부터 15~64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15~64세 고용률¹⁰⁾은 2017년 1~9월 평균 75.1%로 남성은 82.9%, 여성은 67.2%인데, 우리나라에 비해 여성 고용률이 10%p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동기간 일본 전체 취업자는 67만 명 증가했는데 65세 이상 인구에서 39만 명 증가하여 고령층의 취업시장도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도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의 근본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단계를 향해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인구집단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정책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노동공급 유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청년 채용이 개선되는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률은 담보상태이고, 실업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적 요인에 더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가 너무 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내년에는 청년이 주로 흡수되는 제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음식업 고용이 좀 더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경기적 요인은 개선되겠지

10) 일본 총무성 통계국(<http://www.stat.go.jp>).

만, 구조적 요인은 그대로여서 체감은 여전히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구직활동 기간 일정액의 소득지원을 통해 보다 질 높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장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 촉진,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같은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격차해소 노력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조정해 나가야겠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다. 우리나라가 OECD 최고수준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보이며, 그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가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부상해 왔고, 이로 인해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궤도에 들어선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어서 일자리 질이나 소득 개선에는 긍정적이지만, 고용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며, 더 나아가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결합해 저임금 부문의 사회적 보호수준을 개선하는 대책까지 함께 내놓은 상태이다.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해소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높여 소득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사업주 지원을 통해 노동수요도 지지하면서 그간 저임금 부문의 최대 문제로 꼽혀 왔던 낮은 사회적 보호수준(실업급여, 연금 같은)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광범한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의 집행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만큼 내년 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하는 등 안착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KLI

〈부표 1〉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2014	2015	2016	2015. 1~10월	2016. 1~10월	2017. 1~10월
전체	전 체	60.2	60.3	60.4	60.3	60.4	60.7
	15~19세	7.7	7.9	8.0	7.9	8.0	8.7
	20대	57.4	57.9	58.3	57.9	58.4	57.9
	20~24세	44.8	46.1	46.0	46.2	46.1	45.6
	25~29세	69.1	69.0	69.6	68.8	69.8	68.8
	30대	73.9	74.2	74.6	74.1	74.5	75.2
	30~34세	74.1	75.3	74.7	75.2	74.6	74.8
	35~39세	73.7	73.2	74.5	73.1	74.4	75.6
	40대	79.1	79.1	79.2	79.0	79.2	79.3
	50대	74.2	74.4	74.4	74.3	74.3	75.3
	50~54세	77.2	77.8	77.7	77.8	77.6	78.1
	55~59세	70.8	70.6	70.9	70.5	70.8	72.4
	60~64세	58.3	59.4	59.6	59.5	59.4	60.7
	65세 이상	31.3	30.6	30.7	30.8	30.9	30.8
남성 (여성)	전 체	71.4 (49.5)	71.1 (49.9)	71.1 (50.2)	71.1 (49.9)	71.0 (50.2)	71.0 (50.7)
	15~19세	6.8 (8.6)	6.9 (8.8)	7.2 (8.7)	7.0 (8.9)	7.3 (8.7)	7.9 (9.5)
	20대	55.8 (59.0)	56.3 (59.5)	56.8 (59.9)	56.4 (59.3)	57.0 (59.8)	55.9 (59.9)
	20~24세	39.3 (49.5)	40.8 (50.8)	40.8 (50.6)	40.9 (50.8)	40.8 (50.7)	40.3 (50.0)
	25~29세	69.4 (68.8)	69.3 (68.6)	69.7 (69.5)	69.3 (68.3)	70.1 (69.4)	67.8 (69.9)
	30대	90.9 (56.3)	90.9 (56.9)	90.2 (58.3)	90.9 (56.7)	90.1 (58.2)	90.1 (59.4)
	30~34세	89.8 (57.7)	90.0 (59.8)	88.3 (60.2)	90.0 (59.7)	88.4 (59.9)	87.3 (61.2)
	35~39세	92.1 (54.9)	91.8 (54.1)	91.9 (56.5)	91.8 (53.9)	91.7 (56.5)	92.7 (57.9)
	40대	92.7 (65.1)	92.2 (65.7)	92.4 (65.8)	92.2 (65.6)	92.3 (65.8)	92.6 (65.9)
	50대	87.5 (60.9)	86.9 (61.8)	86.9 (61.8)	86.8 (61.8)	86.8 (61.7)	87.6 (62.8)
	60~64세	71.7 (45.7)	72.0 (47.5)	71.7 (48.1)	72.2 (47.4)	71.2 (48.1)	73.5 (48.3)
	65세 이상	42.1 (23.5)	41.1 (22.9)	41.1 (23.2)	41.3 (23.2)	41.3 (23.3)	40.4 (23.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및 구성비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2015. 1~10월	2016. 1~10월	2017. 1~10월
전 산업	25,599 (100.0)	25,936 (100.0)	26,235 (100.0)	25,910 (100.0)	26,206 (100.0)	26,536 (100.0)
농림어업	1,452 (5.7)	1,345 (5.2)	1,286 (4.9)	1,376 (5.3)	1,305 (5.0)	1,307 (4.9)
광업	13 (0.1)	14 (0.1)	19 (0.1)	13 (0.1)	18 (0.1)	22 (0.1)
제조업	4,330 (16.9)	4,486 (17.3)	4,481 (17.1)	4,473 (17.3)	4,490 (17.1)	4,461 (16.8)
전기·가스·증기·수도	83 (0.3)	93 (0.4)	89 (0.3)	92 (0.4)	90 (0.3)	87 (0.3)
하수, 원료재생·복원	87 (0.3)	88 (0.3)	96 (0.4)	88 (0.3)	96 (0.4)	97 (0.4)
건설업	1,796 (7.0)	1,823 (7.0)	1,845 (7.0)	1,819 (7.0)	1,826 (7.0)	1,949 (7.3)
도매 및 소매업	3,792 (14.8)	3,783 (14.6)	3,729 (14.2)	3,788 (14.6)	3,727 (14.2)	3,774 (14.2)
운수업	1,407 (5.5)	1,409 (5.4)	1,412 (5.4)	1,409 (5.4)	1,414 (5.4)	1,389 (5.2)
숙박 및 음식점업	2,098 (8.2)	2,179 (8.4)	2,277 (8.7)	2,171 (8.4)	2,270 (8.7)	2,281 (8.6)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714 (2.8)	772 (3.0)	786 (3.0)	769 (3.0)	781 (3.0)	782 (2.9)
금융 및 보험업	837 (3.3)	789 (3.0)	797 (3.0)	788 (3.0)	794 (3.0)	779 (2.9)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8 (2.0)	535 (2.1)	570 (2.2)	531 (2.0)	567 (2.2)	618 (2.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025 (4.0)	1,048 (4.0)	1,102 (4.2)	1,040 (4.0)	1,100 (4.2)	1,090 (4.1)
사업서비스	1,180 (4.6)	1,249 (4.8)	1,293 (4.9)	1,244 (4.8)	1,291 (4.9)	1,287 (4.9)
공공행정 등	957 (3.7)	936 (3.6)	993 (3.8)	930 (3.6)	991 (3.8)	1,037 (3.9)
교육서비스업	1,807 (7.1)	1,818 (7.0)	1,846 (7.0)	1,814 (7.0)	1,837 (7.0)	1,897 (7.1)
보건업 및 사회복지	1,693 (6.6)	1,770 (6.8)	1,851 (7.1)	1,762 (6.8)	1,844 (7.0)	1,908 (7.2)
예술·스포츠·여가	394 (1.5)	424 (1.6)	406 (1.5)	427 (1.6)	402 (1.5)	422 (1.6)
협회·단체·수리·기타	1,299 (5.1)	1,277 (4.9)	1,272 (4.8)	1,274 (4.9)	1,275 (4.9)	1,272 (4.8)
가구내 및 자가	116 (0.5)	82 (0.3)	69 (0.3)	84 (0.3)	71 (0.3)	64 (0.2)
국제 및 외국기관	14 (0.1)	18 (0.1)	16 (0.1)	18 (0.1)	17 (0.1)	12 (0.0)

주 : () 안의 수치는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